



563MW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 확정

- ESS 중앙계약시장, 전남 7곳, 제주 1곳에 8개 ESS 구축 확정
- 호남 지역,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과 태양광 출력제어 완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총 563MW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사업을 확정했다. 양 기관은 지난 7월 23일 중앙계약시장 우선협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7월 31일 중앙계약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8개 ESS 구축사업 낙찰자를 최종 확정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ESS 중앙계약시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의한 전력계통의 변동성 대응과 출력제어 완화를 위해 2023년 처음으로 제주 지역 3곳(68MW)에 시범 도입되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9년까지 총 2.22GW ESS 구축 목표를 수립함에 따라, 올해는 전국 단위로 제1차 중앙계약시장을 개설하고 540MW 규모 ESS 사업자 선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에서는 육지 500MW, 제주 40MW 용량을 대상으로 총 51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제안서 평가를 통해 전남 7곳(523MW), 제주 1곳(40MW) 등 총 8곳, 563MW 규모의 ESS 구축이 확정되었다.

< (참고) `25년 ESS 중앙계약시장 낙찰 결과 >

지역	변전소	낙찰 물량(MW)	공고 물량(MW)
육지	전남	고흥	500*
		황금	
		안좌	
		영광	
		무안햇빛	
		진도	
		읍동	
	소계	523	* 공고물량의 105%까지 조정 가능
제주	표선	40	
합계		563	540

최연우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재생에너지가 집중된 호남지역 변전소 인근에 ESS가 설치되어 주변 지역의 계통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 평가하고, “송전망 건설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전까지 ESS를 통해 태양광 출력제어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 확대에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내년 1월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고, 12월 말까지 설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올해 10월 제2차 중앙계약시장을 추가 개설해 ESS 보급 목표 달성을 신속히 이행하고 재생에너지 확충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양지 (044-203-3910)
		담당자	사무관	최준혁 (044-203-3903)

